

## 전시회를 열며....

인류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 그리고 이제 혁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테러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팩스 아메리카나의 세계권력구도 안에서 헤테로토피아를 구축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테러인것인가.... 계몽주의 이성을 신뢰하며 발전해온 인류문명은 이제 그 내리막 길에 들어섰다.

인류의 미래에 희망은 없으나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그저 절망할 수 없기에 절망하지 않을 뿐이다. 아니 절망을 단지 뒤로 미룰 뿐이다.

위의 글은 9.11 테러 사건과 미국의 대응을 접하고 내가 끄적거려본 글이다. 나는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며 왜하는가를 자문하여 본다.

..... 절망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판도라 상자의 맨 밑바닥을 침침해진 눈으로 뒤적여보면서.....

(내 이 글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게 느껴지는가.....그 누구의 말대로 미술적이지 못하고 너무 인문학적인가.....)

지난 몇 년간 나는 까닭모를 간헐적 두통과 미란감, 기분나쁜 메스꺼림, 무어라 표현하기 미묘한 심신의 고통을 달래며 이유없는 불안감과 초조감, 이에 따른 심한 우울증과 무력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나에게 강선생은 개인전이라는 대증료법을 제시하였고 나는 그것을 수락했다. 나는 그에게 글을 부탁했고 그는 그것을 수락했다. 이 전시는 나와 강선생의 공동 무대이다.

그의 글은 내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그의 글은 김용익이 글감이된 그의 글이다.

그가 나와 내 그림을 온전히 이해 못하듯 나도 그와 그의 글을 온전히 이해 못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 못하고(아니 나 자신도 나를 온전히 이해 못하고) 오해의 구조속에 산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읽는 **은유와 환유의 생채기**이다. 강선생이 여기에 어떻게 토를 달든.....